



hananimuibetop.org

부록 5b: 현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이 페이지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 [부록 5a: 안식일과 교회에 가는 날 — 서로 다른 두 가지](#)
2. [부록 5b: 현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현재 페이지\).](#)
3. [부록 5c: 일상생활에 안식일 원칙 적용하기](#)
4. [부록 5d: 안식일의 음식 — 실천적 지침](#)
5. [부록 5e: 안식일의 교통수단](#)
6. [부록 5f: 안식일의 기술과 오락](#)
7. [부록 5g: 안식일과 일 — 현실적인 어려움 극복하기](#)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하기

이전 글에서 우리는 안식일 계명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며, 단순히 교회에 출석할 날을 고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옮겨가 봅시다. 곧,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한 후 실제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가톨릭, 정교회,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교 또는 기타 교단 등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배경에서 이 지점에 이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록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경적 진리를 인간이 만든 전통과 구분하며, 현대 생활 속에서도 신실하고 기쁨으로 실천 가능한 안식일 준수 원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율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계명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온 율법에 헌신된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안식일 준수의 핵심: 거룩함과 쉼

안식일과 거룩함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이 일반적인 사용에서 구별되었던 것처럼, 안식일도 한 주의 다른 날들과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일곱째 날에 일을 멈추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창세기 2:2-3). 출애굽기 20:8-11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부르며, 거룩함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네 번째 계명의 본질임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 거룩함은 안식일 시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루틴으로 우리를 되돌리는 활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도록 시간을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안식일과 쉼

거룩함과 함께 안식일은 쉼의 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שָׁבַט (shavat)**은 “그치다” 또는 “멈추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멈추신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게 쉼의 리듬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 쉼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과 소비의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와 새로움, 질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를 멈추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창조주이자 유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도적인 멈춤입니다. 이 리듬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자들은 안식일을 방해가 아니라 매주 주어지는 선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안식일의 독특함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 중 독특합니다. 창조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부터 거룩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계명들과 달리 안식일은 매 7일마다 의식적으로 일상의 루틴을 내려놓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처음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롭고도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리듬, 곧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하신 쉼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주 믿음의 시험이자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강력한 표지가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안식일

이렇게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반복되는 믿음의 시험이 됩니다. 신자들은 7일마다 자기 일과 세상의 압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섯째 날에 만나를 두 배로 거두어 그것이 일곱째 날까지 남도록 신뢰했습니다(출애굽기 16:22). 현대에는 업무 일정, 재정, 책임을 조정하여 거룩한 시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의존을 가르치고, 외부의 압력을 거부하는 용기를 길러주며, 끊임없는 생산성을 숭상하는 문화 속에서 다르게

살려는 의지를 심어 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리듬은 매주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는 영적 척추 역할을 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때

안식일 준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토라 자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의 24시간으로 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해(같은 원리가 적용됨) 하나님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 안식일을 지킬지니라”(레위기 23:32)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칙은 주간 안식일에도 적용됩니다. 곧 여섯째 날(금요일) 해질 때 시작하여 일곱째 날(토요일) 해질 때 끝납니다. 히브리어로는 מֵעֶרֶב עַד-עֶרֶב (me'erev 'ad-'erev) —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 표현됩니다. 이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시대든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기초입니다.

역사적 관습과 히브리적 하루

이 저녁부터 저녁까지의 계산법은 히브리적 시간 개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매일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새로운 날이 해질 때 시작됨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금요일 해 질 때 촛불을 켜고 안식일을 맞이하는데, 이는 성경적 패턴을 반영한 전통입니다. 랍비 유대교가 나중에 여러 관습을 발전시켰지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라는 기본적 성경 경계는 분명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패턴이 인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3:54-56은 여자들이 해지기 전에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에” 쉰 것을 묘사합니다.

오늘날의 실제 적용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단순한 시작점은 금요일 해 질 때를 안식일 쉼의 시작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알람이나 알림을 설정하거나, 지역 일몰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금요일은 יוֹם שִׁשִּׁי (yom shishi) — “여섯째 날”, 토요일은 שַ�בָּת (Shabbat) — “안식일”이라 부릅니다. 여섯째 날 해가 지면 샤밧이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업무나 가사, 장보기를 일몰 전에 마무리—함으로써 거룩한 시간으로 평화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은 일관성을 형성하고 가족, 친구, 심지어 고용주에게도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시간임을 신호합니다.

쉼: 두 극단을 피하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쉰다”는 것을 실천하려 할 때 두 극단 중 하나로 빠지기 쉽습니다. 한 극단은 안식일을 완전한 무활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고 먹고 종교 자료만 읽는 것 등입니다. 이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는 열망을 반영하지만, 그날의 기쁨과 관계적 차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극단은 안식일을 노동에서의 자유이자 자기중심적 오락의 허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레스토랑, 스포츠, 드라마 몰아보기, 미니 휴가로 만드는 것 등입니다. 이는 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그날의 거룩함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일의 쉼

성경적 안식일의 비전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마음을, 주의를 드리기 위해 일상적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거룩함 = 하나님을 위해 구별됨). 예배, 가족 및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자비의 행위, 기도, 공부, 자연 속의 조용한 산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을 새롭게 하면서도 일상의 고된 일이나 세속적 오락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활동들입니다. 이사야 58:13-14는 원칙을 줍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기 욕구를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즐거움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즐거움”은 **אָנֶג** (oneg)으로,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긍정적 기쁨을 뜻합니다. 이런 쉼이야말로 몸과 영을 모두 살리고 안식일의 주인을 영화롭게 합니다.